

## 2007년도 한우심사기술 교육개최

### 1. 목 적

- 한우심사 표준에 의거 심사기술 습득 및 한우의 양·부 결정
- 엄정한 심사로 개체의 특성 파악 및 선발·도태의 자료제공

### 2. 기본방침

- 심사사업의 중요성 및 한우개량에 대한 인식제고
- 심사활용 및 기술습득으로 농가 서비스 개선
- 상위등록 및 우량 종축 선발로 한우개량방향 제시 및 지도사업 추진

### 3. 세부추진요령

#### 가) 대 상

- 각도, 시, 군 한우개량관련 공무원
- 지역 농·축협 및 한우조합, 한우협회 한우개량담당자

#### 나) 추진일정

- 일 시 : 1회차 2007년 5월28일(월)~5월30일(수) (2박3일)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지역
- 2회차 2007년 5월31일(목)~6월2일(토) (2박3일)  
→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광역시지역
- ※ 교육 참가인원에 따라 1,2차시기 조정하여 추후확정 통보
- 장 소 :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3리 1357 소재, Tel 033-345-5167)

## 다) 교육내용

| 요일              | 횟수  | 시간          | 교육내용                   | 강사         |
|-----------------|-----|-------------|------------------------|------------|
| 1회차<br>5월28일(월) | 1일차 | 09:00~10:00 | 한우개량방향                 | 조병대 회장     |
|                 |     | 10:00~11:00 | 2007년 가축개량 정책          |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
|                 |     | 11:00~12:30 | 한우개량 및 등록실무요령          | 이재윤 팀장     |
| 2회차<br>5월31일(목) |     | 12:30~13:30 | 중 식                    | -          |
|                 |     | 13:30~15:00 | 한우 외모기재법 심사요령 및 이론교육   | 신철교 지부장    |
|                 |     | 15:00~18:00 | 한우 체척 및 심사실습           | 한우개량부 일동   |
| 1회차<br>5월29일(화) | 2일차 | 08:00~09:00 | 일본 육질중시형 생산시스템( I )    | 김연상 팀장     |
|                 |     | 09:00~10:30 | 초음파를 활용한 한우사양관리 및 개량방안 | 송영한 교수     |
|                 |     | 10:30~12:00 | 소 질병예방 및 관리요령          | 김종택 교수     |
| 2회차<br>6월1일(금)  |     | 12:00~13:00 | 중 식                    | -          |
|                 |     | 13:00~14:00 | 선진일본 개량증식법 소개          | 김윤식 부장     |
|                 |     | 14:00~18:00 | 한우심사 및 실습              | 한우개량부 일동   |
| 1회차<br>5월30일(수) | 3일차 | 08:00~09:00 | 일본 육질중시형 생산시스템(II)     | 이길환 팀장     |
|                 |     | 09:00~10:00 | 한우 고급육생산기술 및 번식효율 증대방안 | 조병대 회장     |
|                 |     | 10:00~11:00 | 한우심사 이론 및 실기 시험        | 손영석 지부장    |
| 2회차<br>6월2일(토)  |     | 12:00~13:00 | 교육 강평                  | 이종헌 사무국장   |
|                 |     | 13:00~      | 중식 및 해산                | -          |

## ■ 한우심사기술교육 참가신청서

|              |   |
|--------------|---|
| 소 속          |   |
| 성 명          |   |
| 주 소<br>(근무지) |   |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심사교육<br>이수여부 | 처음이다(    ), 참가 한적 있다(    ) / 참가했다면? 몇 번(    ) |

※참가신청서는 필히 **5월12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우편이용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16-5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우:137-871)  
 —팩스이용 : 02-522-0171(팩스 송부 후 02-588-9301~5 접수 확인 요망)  
 —홈페이지 : <http://www.aiak.or.kr> 한우개량부 게시판  
 —신청마감 : 2007년 5월 12일까지 본회 도착분에 한함

협회장동정



- ▶4월 2일 : 포천 검정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평가회 참석(포천농업기술센터)
- ▶4월 12일 : 한우관련 산업회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 참석(한경대학교)
- ▶4월 16일 : 축산현안 대토론회(한미 FTA 축산 생존전략 모색) 참석(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4월 17일 : 창립 18주년 행사 및 고객가치경영 선포식(축산물등급판정소 3층 대회의실)
- ▶4월 24일 : 젖소산유능력 검정농가 평가회 참석(충북낙농업협동조합 회의실)
- ▶4월 25일 : 2006년 유우군 산유능력검정 평가보고회(한경대학교)
- ▶4월 26일 : 서울우유 홀스타인경진대회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 ▶4월 27일 : 노무현대통령과의 한우산업발전 간담회 참석(강원 평창)
- ▶4월 30일 :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추진위원회(본회 회의실)

“2006년 유우군 산유능력 검정 평가보고회”  
성황리 개최

본회는 지난 4월 25일 안성소재 한경대학교에서 검정농가, 검정위원 및 축산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우군 산유능력 검정 평가보고회를 가졌다.

조병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 FTA로 인해 축산농가가 많은 혼란 속에 있지만 낙농산업

이 위축되고 환경여건이 나빠지고 힘들다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낙농가들이 일치단결하고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유 소비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회에서는 서비스 개선에 힘쓰며 검정사업 참여하는 개체에 대해 혈통등록, 심사, 검정성적을 통해 개체의 도태선발기준을 제시하여 농가의 효율적인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요순 소장의 검정사업 평가결과 발표와 공로패(조옥향 은아목장), 감사패(권오윤 오윤목장)수여 및 2006년 검정사업에 두각을 나타낸 농가와 우수 검정회사상이 있었는데, 54개 검정회중 음성검정회(회장 안완석)가 최우수 검정회로 선정되는데 이어 음성검정회 소속 가람목장(대표: 신병국)이 검정종료성적 14,220kg으로 집계되어 우군평균 305일 유량에서 최고목장으로 선정되었다. 검정종료성적 13,000kg대인 목장은 연기검정회 성광목장을 포함한 2개 목장, 12,000kg대인 목장은 양주검정회 산내음 목장 외

3개 목장, 11,000kg대인 목장은 포천검정회 큰별 목장 외 37개 목장으로 전년보다 18개 목장이 늘어났다. 또한, 10,000kg 이상 목장은 양주검정회 승임목장 외 127개 목장으로 전년에 비해 11개 목장이 늘어났다.

### ‘2007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제1차 추진위원회 개최



본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4월 30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2007한국홀스타인품평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올해 개최되는 한국홀스타인품평회는 소비자 와 함께하는 후계낙농인 육성 확대 필요성을 기반으로 개최일과 기간, 출품구분 신설 및 지역 대회 수상축 출품에 대한 사항 등을 중점 논의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품우 자격을 2대 혈통과 본 등록 이상에서 3대 이상 혈통등록우로 상향 조정하였고, 기존 선진 낙농국의 심사위원을 초청에서 올해는 낙농자조금 이상기 사무국장과 본 회 양신철 경북지부장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지역 품평회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대회 부문별 챔피언 및 준 챔피언 수상축은 본 대회 출품 자격이 주어지며, 미 신청 개체도 출품우 규격에 적합한 경우 출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개최일정은 10월10일과 11일 양일간 농협안성연수원에서 개최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협회 창립 38주년 기념식 행사



본회는 지난 4월30일 창립 38주년 기념식을 직원 만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조병대 회장은 기념사에서 “협회가 어느 기관 못지않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종축개량을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있는 협회가 그동안 주어진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충실하였는가? 라는 물음에 모두가 한번쯤은 뒤돌아 보았으면 한다고 말하고 지금 우리 농축산업이 세계시장의 변화에 위기를 맞고 있지만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창립 38주년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자기 개발과 함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슬기를 겸비하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FTA시대에서 우리 축산업이 살아남는 길은 개량과 생산비 절감, 명품화, 순환형 농법으로의 전환 밖에는 없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협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오전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직원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위한 체육행사도 가졌다.

### 포천시 홀스타인검정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포천시 홀스타인검정연합회(회장 김희동)에서는 2007년 4월 10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박

윤국 포천시장,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양기원 포천축협조합장 등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희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우리나라 낙농가들이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차 즉 생애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포천시 젖소개량과 선진낙농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4회를 맞이하는 포천시 홀스타인품평회의 출품두수를 100두로 확대하여 대회 규모를 확대하고, 출품축 기준도 엄격히 강화하여 품격 높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총회 전에 개최된 제4기 임원진 선거에서 김희동 회장, 최명희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유임되는 등 전체임원의 큰 변동 없이 임원진 선출이 이루어졌다.

### 축산물등급판정소 고객가치 경영선포식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2007년 4월



17일 김달중 농림부 축산국장, 한국축육개량협회 조병대 회장 등 내외빈을 모시고 고객가치

경영선포식 및 창립18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1989년 4월 한국축육개량협회 소속으로 축산물등급판정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1년 7월 특수법인으로 독립, 2007년 1월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하였으며, 2007년 4월에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2006년 충북 젖소개량평가 보고회



“정확한 개체 혈통 및 능력조사와 기록을 유지하여 젖소의 선발·계획교배로 체계적인 개

량 및 낙농경영 개선 도모” 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실시한 충북도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2006년 충북 젖소개량평가 보고회가 충북낙농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신관우 충북낙농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한미 FTA체결에 따른 미국에서 TRQ 물량으로 15,900톤의 분유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물량은 진흥회 전체 집유물량의 27%이며, 충북낙협의 2.7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EU 등과도 협상이 타결된다면 더 많은 물량의 분유가 도입된다면 한국 낙농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낙농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무 우유급식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우유소비량을 늘리

는데 일조하고, 학생들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낙농가 스스로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축개량협회 조병대 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가축개량은 한국낙농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며, 낙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더불어 젖소개량의 목표를 단순한 유량을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경제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형을 개량하여 2.4산에 불과한 경제산차를 4~5산으로 늘려 생애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축개량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충북도 축산을 총괄하고 있는 광용화 축산과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서 한국중축개량협회 중앙유성분 분석소 임요순 소장이 충북지역 검정성적 발표를 통하여 혈통등록 두수 및 혈통비율, 심사두수 및 평균심사점수, 검정두수 및 평균유량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밖에 농협 젖소개량부 조주현 박사가 젖소개량교육, 충북검정연합회 광한무 회장의 낙농가의 마음자세 교육, 남춘목장 양병철 사장의 우수농가 사례발표가 있었다.

그밖에 충북 축산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축산인으로 선정된 음성검정회 안완석 회장, 한국중축개량협회 정용호 부장, 충북낙협 이동환 씨에 대한 충북도시사의 표창장 수여와 우수목장으로 선정된 가람목장 신병국 대표, 태명목장 이명근 대표, 남춘목장 양병철 대표, 산수목장 송무섭 대표가 기념패를 수여 받았다.

### 남양유업, 임원진·부장급 대대적 인사개편

남양유업은 앞으로 기획·경영·영업·홍보·생산·개발업무를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키 위해 최근 임원진과 부장급을 대폭 개편했다. 16일 남양유업(대표이사 박건호)에 의하면 FTA타결 등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시점에서 보다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면서 회사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홍보업무에 주안점을 두어온 성장경 홍보상무를 전무급인 영업·홍보총괄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또 전무급인 기획·경영전략 총괄본부장에 김용씨를 비롯 상무급인 생산·개발전략본부장에는 정승환씨, 천안공장장에 곽주영씨, 총무담당상무에 이원구씨 등을 각각 승진 또는 전보했다. 또한 중앙연구소장에 전태홍씨, 공주공장 부공장장에 김중섭씨, 경영전략실장에 신철효씨, 부산지점장에 김정엽씨, 서울남부지점장에 김용수씨, 영업2부장에 노문환씨, 천안공장 생산 부장에 정세용씨, 천안신공장 생산부장에 진현석씨 등 부장급 8명을 승진 또는 전보 발령했다.

### 서울우유 조합장 조흥원 후보 당선

서울우유 17대 조합장에 조흥원 후보(64세)가 당선됐다. 서울우유는 17일 관내 21개 지역에

서 일제히 투표를 실시하고 본조합에서 집계시켜 개표를 한 결과 기호 1번 조홍원 후보 1197표와 기호 2번 김재술 후보 1091표를 얻어 조홍원 후보가 106표의 큰표 차이로 당선됐다.

### 한우에 전자태그 의무화 추진



앞으로 소비자들이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 고기로 속아 사는 일이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우에 무선인식(RFID) 기술을 이용한 전자태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축산 농가와 도축장 등에서 전자태그에 원산지과 가공 정보 등을 입력하면 소비자는 인식기가 부착된 휴대전화로 입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RFID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부가 2003년부터 RFID 시범사업을 해 왔지만 전자태그와 인식기 가격이 비싼 탓에 이용이 저조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업 발굴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각 부처는 내년에 RFID 사업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벌인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경우는 양주.귀금속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유통 경로를 확인해 세원 관리를 정확히 하고, 가짜 양주.귀금속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RFID 의무화 대상 제품도 발굴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농림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한우뿐 아니라

각종 농.축산물에 RFID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통부 양준철 미래전략본부장은 “현재 개당 300원인 전자태그 가격이 2010년엔 20~30원대로 떨어져 RFID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생산과 유통 과정이 투명화되고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분야 사용 확산을 위해 RFID를 채택하는 기업엔 세부 조사를 완화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RFID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인식기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 노무현대통령과의 평창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우산업 발전 방안 논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강원 평창지역 한우 사육농가를 방문해 30여분간 한우 축사를 둘러본 데 이어 평창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한우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노대통령의 이날 평창방문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이후 이와 관련된 피해 예상 산업현장에 대한 첫 방문이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축산물 유통질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 식약청,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원) 등 책임자를 모아서 유통문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평창지역의 한우농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만약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이 한우고기는 한우고기로, 수입육은 수입육

으로 제대로 투명하게 팔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한데 대한 답변이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타결로 (한우분야가) 실제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보다 증폭돼서 느끼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겁을 많이 먹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최선을 다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FTA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들어오게 돼 있다며 앞으로 15년동안 2.6%씩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타결로 이득을 보는 수혜자가 피해보는 산업에 직접 지원토록 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 훨씬 낫다며 수혜자가 농업농촌에 이익을 투자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에서 조금만 지원해 줘도 일어설 수 있는 중간단계 농민에게는 투자하되, 풀찌 하는 농민에게 지원은 곤란하다며 가능성 있는 농민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조사료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방안도 조사해 보는 한편 초지 조성 시 필요한 사전환경성 평가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따져 보겠다고 말해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대통령의 평창방문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축산관련기관(단체장, 한우농가 및 축산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번 농가

방문은 한·미 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민생 현장인 축산농가를 찾아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대책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 (주)드라발\_‘한국 낙농목장의 미래를 위한 국제세미나’ 앞두고 기자간담회 개최

⇒ 세미나 5월 10일 의정부 아트센터 및 양주 연산목장에서 개최



“드라발의 세계적 정보와 현장 경험을 한국낙농가와 공유할 것”

드라발은 오는

5월10일 개최 예정인 “한국 낙농목장의 미래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앞두고 지난 20일 팔레스호텔 회의실에서 낙농전문 기자들을 초청하여 마이클 휴스(Michael Hughes) 동아시아 담당 사장, 헬리페 모레노 (Felipe Moreno)드라발 한국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마이클 휴스(Michael Hughes) 당사 동아시아 담당 사장은 이번 국제세미나는 낙농분야 글로벌 기업인 드라발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정보와 현장 경험을 한국 낙농가들과 공유하고 낙농의 한국형 표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개최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낙농업은 규모화의 급속한 진전과 낙농가수 감소, 노동력 부족, 환경규제 강화 등과 같은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FTA와 같은 세계화는 한국 낙농업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해 경험하고 각국의 실정에 맞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드라발의

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 낙농업과 낙농가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드라발의 “한국 낙농목장의 미래를 위한 국제세미나”는 오는 5월10일 의정부 아트센터(1부)와 연산목장(2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내용에 있어서도 드라발 본사의 전문가들이 방한하여 「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사양 환경, 젖소의 효과적인 급이와 영양, VMS의 운용관리」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드라발 문성재 이사 02-796-8983 / 010-4651-4401, 대행사 ㈜대진이앤컴 전창현 02-543-4990 / 011-224-6985

### 한우 인공수정 실습교육 열기 가득

‘축산연구소 한우농가 초청 교육 실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는 3월27일부터 한우농가들을 가축유전자원시험장(전북 남원 소재)으로 초청하여, 인공수정 기술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교육은 남원지역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공수정 교육은 발정확인, 냉동정액의 용해, 자궁축진 및 정액주입 요령 등에 대하여 직접 체험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축산연구소에서는 실습 한우를 준비하고, 연구원들이 농가들이 자궁에 직접 정액을 주입할 수 있도록 실습지도하여, 빠르고 쉽게 인공수정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농가들은 “지방에 거주하다 보

니 인공수정 기술교육을 받지 못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축산연구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배려해 준 것에 감사하고, 그 동안 인공수정을 실시할 때 비위생적인 주입으로 수태율이 낮았으며 이번 교육에서 위생적인 주입방법을 알게 되어 교육에 참석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 “TMR 활용의 당면과제와 대안” 심포지엄 개최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와 TMR연구회(회장 김동균)가 2007년 3월29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충남 천안시 소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TMR 활용의 당면과제와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이 낙농농가, 학계 및 관련 산업체 등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오전 심포지엄에서는 손용석 교수(고려대)가 좌장을 맡아 2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박진홍 이사(리치TMR)는 일반적으로 제조하여 판매되고 있는 TMR과 이러한 TMR을 한가지로 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으며, 양운목 박사((주)우성사료)는 한국과 일본 TMR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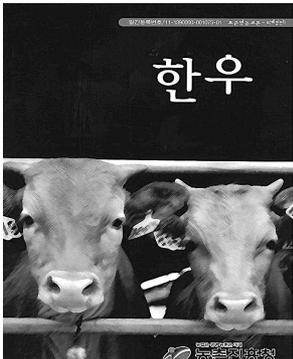
이어서 오후 심포지엄에서는 안병석 부장(축산연구소)이 좌장을 맡아 2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임영철 박사(축산연구소)는 국내 조사료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TMR제조 및 이용을 위한 자급 조사료의 확보방안과 사료작물 재배기술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마지막

으로 이도형 박사(드림피드)는 이스라엘 낙농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통한 저비용 TMR의 제조 및 이용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에 폭등하는 단미사료 가격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다양한 부존사료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하기 위한 실증자료를 위주로 발표가 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 심포지엄을 주관한 TMR 연구회는 국내 TMR 산업의 활성화와 올바른 TMR 활용에 의한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축산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산·학·관·연 관련자들이 모여 2000년 3월에 창립된 연구회로 연 2회 춘계와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한우사육 농가를 위한 새로운 『표준영농교본(한우)』 책자 발간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는 한우사육농가를 위하여 최근 한우사육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준영농교본『한우』

개정판을 5년 만에 발간하여 농촌진흥기관과 관련분야의 연구소, 기관 등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각 분야에 걸쳐 농업인을 위한 영농교본을 집필 간행하고 있다. 금년도 3월에 한우사육 농가를 위하여 표

준영농교본인『한우』개정판을 5년 만에 내놓게 된 것이다. 한우 관련분야 24명으로 구성된 최고 전문연구진들이 각 부분에 걸쳐 한우사육 농가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선진 축산을 선도할 전문 축산인들이 영농현장에서 실용적인 지침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재구성은 최근의 한우산업 현황 및 전망, 개량방법, 번식기술, 사육기술, 쇠고기의 특성, 한우시설과 분뇨처리 이용, 조사료 이용, 질병 예방 및 경영 등 총 12장 571쪽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책의 앞부분에 최근 이슈가 되는 한우산업에 대한 것을 원색사진으로 게재하여 사육농가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축산연구소 이상진 소장은 “최근 미국과의 FTA협상 과정에서 쇠고기 수입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한우고기의 안전성과 질 좋은 상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으로서 한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 수입쇠고기와 품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한우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내놓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 기타 안내사항은 축산연구소 한우시험장(☎ 033-330-0613 ; 조원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친환경기술과(☎ 031-299-2708 김현주)나 가까운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신문사(☎ 031-295-3201~2)에 문의하면 된다.

### 한우협회 고양시지부장 이·취임식 개최

전국한우협회 고양시지부는 4월 3일 고양한우



영농조합법인 사료배합소에서 본회 조병대 회장, 경기도 김보연 의원 등 많은 귀빈들을 모시고

고양시 한우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오성조지부장 퇴임식 및 유완식 지부장 취임식과 아울러 고양행주 한우 고급육 시식회를 가졌다.

### 축산연구소 간척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작부체계 확립

『염해 강한 사료작물 재배로 국내 조사료 자급을 향상 기대』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에서는 쌀 소비량 감소 및 휴경농지 증가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를 조사료 생산기반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간척지에서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료작물 작부체계연구를 '04년 ~ '06년 동안 3년간 수행한 결과,

⇒ 발조건으로 재배시에는 여름철 사료작물로 수수×수단그라스, 겨울철 사료작물로는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작부체계, 논조건으로 재배시에는 여름철 사료작물로 총채벼, 겨울철 사료작물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작부체계 도입으로 수입조사료 대체 및 양질의 조사료공급 확대가 기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재고량 증가로 쌀 생산 조정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이 '06년 955

천ha에서 '14년 752천ha까지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REI, '05)

지금까지 간척지는 벼를 중심으로 한 주곡생산지로 활용 되어져 왔지만,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간척농지 이용의 다변화 및 고도 이용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간척지 토양은 일반적으로 토질이 가는 모래와 진흙함량이 많아 물 빠짐이 불량하고 지하수위가 낮아 벼 이외의 작물재배에는 세심한 주의를 요하지만 벼 재배가 가능하고 배수조건이 양호한 대상지라면 사료작물의 재배이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05년 국내 연간 조사료 공급량은 4,131만톤으로 이중 약 17%인 약 70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료가치가 낮은 볏짚으로 50%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휴경되는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양질 조사료를 생산하면 연간 1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조사료를 대체하는 효과와 조사료 자급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에서는 수입조사료 대체 및 양질의 조사료공급 확대를 위해 간척지를 대상으로 재배조건별로 사료작물을 도입하여 3년간('04~'06) 연구한 결과, 논조건으로 재배시 총채 벼(여름작물)+이탈리안 라이그라스(겨울작물) 작부체계, 발조건으로 재배시는 수수×수단그라스(여름작물)+이탈리안 라이그라스(겨울작물) 작부체계가 수량과 사료가치에서 우수하였다.

### 조사료 자원개발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조사료자원과(과장 서성)는 지난 2007년 4월 2일 축산자원개발부(충



남 성환 소재) 세미나실에서 조사  
료자원 개발과  
생산현장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 세미

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의 제1주제는 김혁기씨가 “조사료  
생산을 위한 로더 부착 트랙터 작업”에 대하여,  
제2주제는 최진혁씨가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  
계화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서성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  
를 일상화하여 전직원이 자연스럽게 연구에 대  
한 동향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 농촌진흥사업 축산분야 대국민보고회 개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는 2007  
년 4월 11일 농촌진흥사업 축산분야 대국민보고  
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오후 18시까지 진행  
되었다.

이날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축산연구소 수  
원 본관에서 개최된 축산분야 대국민보고회  
에서는 최근 연구성과 설명 및 기관소개를 하였고,  
참석한 방문자 약 200여명을 위하여 안전축산물  
시식회도 가졌으며, 이와 아울러 방문자들에게  
는 요람, 홍보책자, 리플렛 등을 제공하고, 간단  
한 선물도 제공하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 운동장에서 개  
최된 야외전시장은 축산관, 원예관, 생명관, 농  
공관, 작물관, 친환경농업관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촌진흥사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진수를 느낄 수

있었다.

축산연구소는 축산관에 다양한 축산관련 화관  
및 실물전시를 하고 이와 아울러 전문분야 별로  
연구원들이 축산관련 전문 상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날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축산연구  
소 수원 본관에서 개최된 축산분야 대국민보고  
회에서는 최근 연구성과 설명 및 기관소개를 하  
였다.

참석한 방문자 약 200여명을 위하여 안전축  
산물 시식회도 가졌으며, 이와 아울러 방문자들  
에게는 요람, 홍보책자, 리플렛 등을 제공하고,  
간단한 선물도 제공하였다.

### 강원도 한우광역브랜드 “한우령” 출범식



강원 영동 한  
우광역브랜드

“한우령”이 지난  
4월 11일 공식  
출범함으로써

강원도내 전지

역 한우농가들이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한우령 연합사업단은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김  
대현 강원 축협운영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  
데 현판식을 갖고 이어 경포대 소재 현대호텔에  
서 출범식을 가졌다.

강원 영동 한우연합사업단에서는 강원지역 한  
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한우농  
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을 위하여 영동권 7  
개 시군과 4개 축협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금년도 사업 추진 목표로는 사육두수 13,000  
두, 1등급 출현율 77%, 혈통등록 비율을 68%로  
경제형질이 높은 송아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 한우핵군육종연구회 농장위원회의 개최



한우핵군육종 연구회(회장 장성운)는 지난 4월 10일 대전 샷또그레이크호텔에서 핵군육종연

구회 장성운 회장, 김근신 사무국장, 이근수 감사, 김맹기 농장위원, 임종선 농장위원과 한국종축개량협회 김윤식 부장, 이길환 팀장, 권순성 팀원이 자리한 가운데 농장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2007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임원진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날 회의결과 ▶ 심포지엄은 6월말경 전북 김제에서 한우산업에 대한 정책설명 1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강사1명, 이론과 현장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개량전문 강사1명으로 강사와 내용을 구성하여 개최기로 하였으며, ▶ 현장견학은 7월말 강원 횡성에서 “이천과 횡성의 번식 및 비육을 동시에 하는 농가를 방문하여 번식우 관리요령과 비육기술”에 대한 현장견학 실시기로 하였다. 또한 ▶ 경매행사는 8월말경 충남 논산소재 논산우시장에서 갖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출품축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다. 「생년월일: 2006년10월1일 ~ 2007년 2월28일생(생후 7~11개월령), 성별: 암, 거세우(비거세 수송아지는 출품불가), 생시체중: 출품축은 생시체중 등의 기록이 있는 개체, 출품축 어미등록구분: 출품축의 어미는 혈통등록우 이상의 등록단계인 개체」로 함.

## 대한제당 무지개사료



## 영국 BOCM PAULS사와 기술제휴 연장

영국 BOCM PAULS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하

여 사료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가 2007년 4월 기술제휴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는 2003년 영국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사료회사인 BOCM PAULS사와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하여 신제품 개발 및 프로모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판매목표를 양사가 같이 수립하여 공동의 책임하에 세부전략을 세워 추진하는 등 그 동안 다른 경쟁사와 차별화된 방법으로 기술제휴를 수행하여 농가의 생산성 개선을 통한 수익 향상에 기여해왔다.

무지개사료는 선진화된 BOCM PAULS사의 운영시스템을 받아들여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자돈의 최적 성장을 보장하는 “QPD”, 국내 최초로 PMWS를 제어하는 사료인 “스티뮤레이트”, 모돈 및 자돈의 건강을 고려한 “GPN”, 자돈의 설사를 치료하는 “까만사료” 등의 양돈 사료와 낙농사료에서는 빠른 반추위 발달과 설사를 예방하는 사료인 “큐알디”, 유지방을 올려주는 “골든팻”, 번식성적을 개선하는 “LTF” 등 새로운 개념과 선진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출시하여 학계, 사료업계 및 농장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판매 증가를 보여왔다. 뿐만 아니라 공장의 생산공정부분 기술제휴를 통하여 고품질의 제품

생산과 공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양계부분 기술 제휴를 추가하여 향후 국내 양계사료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제품을 선보여 양계분야에서의 제품 및 시장선도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미FTA의 타결로 인하여 국내 축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과거 EU의 통합 등 우리와 유사한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영국 축산업의 노하우를 받아들여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여 축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열의가 돋보인다. 2003년 기술제휴를 통하여 한국 축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무지개사료가 2007년 3년 연장 계약을 통하여 BOCM PAULS사와 함께할 활동이 주목된다.



### 퓨리나 개군한우 실증발표의 날

주)에그리브  
랜드퓨리나코리아(대표이사 정

학상)는 지난 4월20일 경기도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300여 한우농가가 자리한 가운데 “물맑은 양평개군한우”의 지난 2년간의 실증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물맑은 양평개군한우”는 1987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2004년 축산물브랜드전 최우수상, 2006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우수상, 2006년 경기도브랜드경진대회 최우수상 등 많은 상을 받았고, 2005년부터 사)소비자시민모임의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을 받았다.

개군한우는 1998년부터 “퓨리나 한우사랑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기존 한우사랑보다 1+등급이상 등급출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퓨리나 한우사랑 플러스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소개된 성적은 “퓨리나 한우사랑플러스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나타난 2년간의 성적이다.

박종은 축우특판부장은 한미 FTA 타결과 미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한우농가들에게 비육우 시장상황과 함께 퓨리나의 대응전략으로 첫째, 1등급 출현율을 넘어 1+등급 출현율을 높여 육질차별화를 해야 하며, 두번째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한우생산을 위하여 사료의 HACCP 인증, 방역철저, 생산이력제가 필요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명품브랜드를 개발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앞으로 소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규모화를 통한 매출 증대가 필요하며, 가격하락은 규모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개군한우는 차별화된 가치창조를 통하여 이러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김원경 축우판매부장이 발표한 2005년도, 2006년도 “물맑은 개군한우”의 성적을 살펴보면 개군한우가 가지고 있는 국제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2005년도는 533두를 출하하여 1+등급이상 56%, 1등급이상 86%, 도체중 423kg, 배최장근단면적 87cm<sup>2</sup>으로 2005년도 전국평균 1+등급이상 39%, 1등급이상 70%보다 매우 우수한 성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06년도에는 2005년보다 향상된 성적

으로 903두를 출하하여 1+등급이상 62.4%, 1등급이상 86%로 1+등급이 6% 향상되었으며, 도체중 426Kg, 배최장근단면적 86cm<sup>2</sup>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2006년도 전국평균 1+등급이상 40.6%, 1등급이상 71%보다 월등히 우수한 결과로 2005년도에 이어 꾸준히 향상된 결과를 보여줬다. 결국 개군한우가 2006년도에 전국평균대비 1+등급이상 출현율이 무려 21.8%나 높았고 이는 농가의 수익성으로 이어졌다. 실제 두당 지육판매액에 있어 2006년도 전국평균이 6,060,986원에 비해 개군한우는 7,053,898원으로 “퓨리나 한우사랑플러스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두당 약 100만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개군한우는 입식부터 혈통등록우만을 구입하여 퓨리나 수송스트레스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입식관리를 하고 있고, 퓨리나 한우사랑플러스 급여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또한 초음파육질진단을 통하여 출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일부 구간에 퓨리나 한우티엠알프로그램을 2003년부터 적용하여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 개군한우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하여 1+등급이상 80%를 목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성적은 개군한우의 지난 2006년 9~12월 출하성적이 1+등급이상 76%, 그리고 대상 수상자이신 박영기 사장이 작년에 1+등급이상 82.1%를 보여주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더욱 향상된 좋은 성적을 통해 개군한우의 성장을 바라며, 한우농가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 전국한우협회\_2007년 1차 한우판매점 인증제

### 오픈행사 개최



전국한우협회 (회장 남호경)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창동소재 황성

축협 한우프라자(창동점)에서 2007년 1차 한우판매점 인증점 오픈행사를 가졌다.

이날 남호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5~6년쯤 후 미국이나 중국 등과의 FTA를 대비해 정말로 고집스럽게 한우고기를 판매해주는 업소에 대해 인증해주면서 관리해가고 인증업소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 모든 문제를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작년 12곳을 선정 인증했고, 올해 1차로 24곳을 또다시 인증하게 되었다고 말한 뒤 사실 한미FTA 등 적어도 개방이 3~4년의 말미만 주어졌더라도 수백 군데의 한우판매인증점을 오픈해 놓고 소비자도 보호하고 한우농가도 보호하면서 고급스럽고 위생적인 생산을 통해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더 갖추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한우가 소비자에게 더욱 믿음직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날 황성축협 한우프라자 창동점이 한우판매인증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된 황성축협의 고명재 조합장도 “함께 자리한 여러분들이 한우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우를 통해서 끝까지 이 땅위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100% 한우만을 판매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한우판매점인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2007년 1차 한우판매점인증제 인증부여 업소현황】**

- 국가대표 토종한우\_02)403-1258,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89-26호
  - 대가한우촌\_02)453-5255,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1-1 3층
  - 횡성축협 한우프라자차동점\_02)999-5663, 서울시 도봉구 창동 334
  - 광릉한우방\_031)529-9988,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20-1
  - 송원\_031)878-4331,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280-2
  - 우신정\_031)657-8484/8483, 경기도 평택시 비전1동 603-2
  - 우신정\_032)675-019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2-13
- 농협축산물공판장**
- 청풍명월 뜨레한우\_043)843-5665, 충북 충주시 연수동 621-3
  - 삼익한우촌가든\_041)734-6888, 충남 논산시 부석면 아호리 144-1
  - 황토마당\_041)338-6363,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48-7
  - 황토마당 2호점\_041)338-6364,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88-6
  - 누렁송아지\_063)236-311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59-56
  - 용전식육식당\_061)571-1261,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616-1
  - 안동황우촌\_054)841-8222, 경북 안동시 옥야동 306-44
  - 만포한우갈비\_054)272-9366,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8-7
  - 한우명가 북주\_054)452-5565, 경북 구미시 선기동 747-40
  - 내고향 한우촌\_054)430-2479, 경북 김천시 부곡동 1505
  - 대가한우촌\_055)638-5659,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015-1
  - 한우마당\_055)637-3411,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24
  - 기쁨두배로 식육셀프식당\_055)385-3000, 경남 양산시 중부동 384-3
  - 삼간우장터식육식당\_055)934-2001,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927-2
  - 초은한우 암소한마당\_055)964-0066,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1596
  - 한우마을식육식당\_055)552-2888, 경남 진해시 자은동 532-2
  - 부자집\_055)552-2314, 경남 진해시 거주동 286

**영주시 양돈농가 1차 축산기술 종합지원 실시**



축산연구소 (소장 이상진)에 서는 지난 2월 27일 차별화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모델을

확립코자 축산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의 종합적 이전을 요청한 영주시와 축산기술 종합지원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 일환으로 축종별 사업이 진행중인데, 양돈과(과장 김인철)에서는 『번식률 향상 자가 인공수정 기술』, 『분뇨처리 및 액비 자원화 기술』, 『만성소모성질환 최소화 사양 기술』로 나누어 각 분야별 3~5농가씩 연중 3회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3일 『번식률 향상이 자가 인공수정 기술』 팀에서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돼지 자가 인공수정 강의를 실시하였고, 덕암농장에서 정액채취, 정액검사 및 제조 기술을 실습을 통해 지원하였다.

타 분야도 4월중으로 1차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후 2차 방문시(7월경 예정)에는 지원기술 점검 및 개선사항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회에 걸친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실시로 양돈농가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한미FTA 대응 농가 의견수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한미FTA 타결에 따른 축산농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 25

일 충북 충주시 신니면 형제농장(대표 오후택, 한우 3백두 규모)을 방문했다.

이날 손 전 지사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축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의 식탁을 외국 축산물에 잠식되지 않도록 희망을 가지고 한우를 세계 최고의 고기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축산농가의 의견을 경청했다.

오후택 대표는 “한미 FTA 타결 후 송아지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배합사료 가격이 너무 높아 외국 축산물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사료 물류비용 간접지원, 원산지 표시 전면 시행, 도축세 목적세 전환 등을 건의했다. 또 단체급식에서의 국산 축산물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면세류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 자조금관리위원회, 인터넷 무료법률 서비스

축산농가들을 위한 인터넷 무료 법률서비스가 한우 자조금에 의해 실시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최근 축산분야 전문 변호사인 김태욱 변호사를 자문 변호사로 선임, 인터넷 홈페이지(www.hanwooboard.or.kr)에 법률상담코너를 개설해 한우 및 축산관련 법률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한우자조금사무국 임봉재 팀장은 “간단한 법률상담만으로 피해갈 수 있는 문제임에도 지역의 농가들이 부족한 법률지식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피해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이 같은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다

소나마 해소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농가들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품목별 대응방안

#### 보고회 개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는 2007. 4. 23(월) 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성환 소재)에서 농촌진흥청 김인식 청장께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품목(한우, 돼지, 젓소, 닭, 오리)별 대응방안을 보고 하였다.

각 품목별로 ▷국·내외 산업현황 ▷국가별 기술수준 비교 ▷당면현안문제 및 요인분석 ▷대응방안의 순으로 보고가 되었다. 세부 대응방안의 내용을 보면 ▷한우분야 : '07년부터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 등 ▷돼지분야 : 브랜드 돈육 생산을 위한 고급육형 종돈 개발 등 ▷젓소분야 : 고품질·안전 기능성우유 생산에 의한 우유소비 확대 등 ▷닭분야 : 국가 보유 가금유전자원을 기반으로 FTA 대응 전략상품을 개발·산업화 등 ▷오리분야 : 오리 생산체계 정립 및 산육능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보고하였다.

김인식 청장은 “FTA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축산연구와 기술발전에 매진하여 축산농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 뉴질랜드, 향후 국제 유제품 수요 매년 2.7% 증가 전망

뉴질랜드 최대 낙농조합인 폰테라사는 최근 세계 유제품 수요량이 지난 10년간 2.0% 증가한 반면 향후 10년간은 매년 2.7%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하였다. 특히 향후 10년간 공급량은 매년 2.0% 증가에 불과해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요증가는 중국이 고소득층 증가, 도시화에 따른 식생활 변화, 정부의 유제품소비 지원 등에 힘입어 전 세계 소비증가량의 30%를 차지하는 것에 기인하는데 인도, 브라질, 미국 등 주요 유제품 수출국에서 소비가 증가하여 수출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향후 국제적인 유제품 수출에서 유럽연합의 물량은 감소하고 뉴질랜드와 호주가 2대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큰데 뉴질랜드에서는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원유생산원가 증가가 예상되어 생산비용이 저렴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과의 경쟁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해외축산정보 4월6일자)

### 미국, '06년 젖소 목장 4% 감소, 호당 사육두수 147두

'06년 미국내 젖소사육농가수는 전년대비 4%인 2천550농가가 감소한 6만1천990농가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감소세는 낮은 유대와 비싼 생

산비용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04년도에는 5%인 3천545농가가 폐업하였으며 '05년도에는 3.4%인 2천290농가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호당 사육두수는 지난 14년간 2배로 증가하여 '92년 목장당 74두에서 '06년에는 147두로 늘어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육두수 증가는 특히 미국 서부지역에서 대규모 사육목장 증가로 두드러져 '92년 호당 263두에서 '06년 706두로 2.68배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미국내 50개주에서 워싱턴주를 포함한 10개주는 지난해 목장수의 증감이 없었으며 위스콘신주와 워싱턴주가 460농가가 폐업하여 가장 많은 목장수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발표되었다.

### 일본, 4월부터 홀스타인 심사 표준 개정 적용

일본 홀스타인등록협회는 4월1일부터 홀스타인 암소 및 수소에 대한 심사표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세계 홀스타인후리지안 연맹이 각국에 심사기준의 개선을 권고한 점을 고려하여 장수성이나 번식성의 저하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특히 발굽과 다리, 엉덩이에 가점을 준 반면 장수성에 유전적으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는 체적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홀스타인 협회는 이번 심사표준 개정으로 낙농 사육규모가 대형화 되면서 나타나는 생산수명이나 번식성이 저하를 억제하여 우군내에 오래 체류하며 생산성이 높은 젖소를 개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계 홀스타인 연맹은 각국 젖소 체형심사기준의 통일을 위해 암소의 심사표준을 골격, 지체, 유용강건성, 유기의 4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유기의 배점은 40점 이상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06년 최고 젖소, 유량 2만4천434kg, 외모 93점

'06년 일본내 능력검정 젖소중 최고 유량우는 북해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99년생 '라프링크'로 365일 성년형 유량으로 2만4천434kg, 유지율 3.4%9점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아비소가 '테스크 테리'인 이 소는 역대 기록으로는 8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형별로는 5세우에서 '밀크하우스 탑건'이라는 소가 유량2만848kg, 유지율 2.8을 생산하여 최고기록을 갱신하였고, 7세우에서 '카운테스로즈'라는 소가 365일 검정으로 유량 1만9천957kg, 유지량 962kg을 기록하여 유지량 부문에서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06년 일본내 우군체형 심사는 46개 도부현에서 8천837두로 7년 연속 심사두수가 증가되었으며, 체형점수 90점이상인 소는 모두 108두로 '05년에 비해 28두가 감소하였다. 최고득점우는 구마모토에서 사육되고 있는 '아이온마크'라는 소로 7세4개월령에 93점을 받았으며 이밖에 92점이 5두, 91점이 18두, 90점이 84두로 발표되었다

## 일본, 화우암소 증산을 위해 낙농가 보조금 지원

일본 농림수산성은 화우 번식농가의 고령화등에 따른 이농으로 육용우 번식암소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육용우 사육농가는 물론 낙농가에 계도 보조금을 주어 번식우 생산을 적극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는 '05년 수립한 농업·농촌 기본계획에 따라' 15년까지 육용우 번식암소를 73만3천두로 설정하였지만 '93년 74만두였던 암소두수가' 06년에는 62만1천두로 줄어들어 매년 1만두의 증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

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낙농가는 젖소에 화우 수정란을 이식하거나 교잡우를 포함하여 화우 암송아지를 생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이농하는 농가의 번식암소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캐나다, 젖소 능력검정 우유샘플로 백혈병검사 개시

캐나다 최대 젖소능력 검정담당기관인 '캔웨스트' 사는 4월부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우유샘플을 활용하여 소 백혈병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소 백혈병은 체중 및 유량감소를 일으키는 만성질환으로 혈액이나 초유, 폐기우유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캐나다 전체우군의 40%정도에서 발견되어 후보축 판매, 종모우나 수정란 수출등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혈병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대상을 정하여 우유샘플을 송부하면 2일후에 결과를 통보받는데 검사방법으로는 최신 기법인 '엘리사' 분석법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네덜란드, 최대 정액판매기관 육종협회와 제휴

네덜란드 최대 종모우 선발 및 정액생산 판매기관인 '홀랜드 제네틱' 사가 자국내 육종협회? '에이아이 캠프' 과 업무제휴를 통해 동 협회가 보유한 유명 젖소종모우의 정액 해외판매를 전담한다고 발표하였다. '타코', '피트리스트', '빅크맨' 등 유명 젖소종모우를 소유하고 있는 육종협회는 이번 제휴를 통해 '홀랜드 제네틱' 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판매대리점을 통해 정액 수출판매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